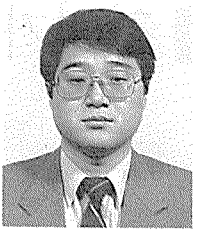
프랑스人의 자존심

강한 자존심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프랑스가 통합 유럽제국의 좀 더 많은 부문에서 역할분담을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첨단기술을 보급확산시켜 국민의 자존심을 잃지 않게 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도시와 시골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시켜준 초고속열차운행과 일반대중속의 사회적 격차를 해결해준 '미니텔'이라는 비디오텍스형컴퓨터단말기의 보급이다. 전화번호책 대신 무료로 보급하기 시작한 '전자전화번호부'가 그 시작이었다. 전화기가 많이 보급될수록 전화번호부가 두꺼워지게 되고 수시로 이사를 다니게 되면 전화번호책을 자주 새롭게 인쇄해야 했다. 새로 인쇄된 두꺼운 책을 배달하는 비용 또한 엄청난 것이었다. 이런 것의 해결책이 미니텔의 보급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프랑스 정부가 미니텔을 핑계로 하여 프랑스의 문화, 특히 언어와 문자를 최첨단 컴퓨터기술로 각 가정의 안방에 침투시킨 것이다. 이러한 프랑스 정부의 빈틈없는 계획과 실천 노력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컴퓨터 그 자체를 설계 제작하고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에서는 아직 세계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컴퓨터 단말기를 모든 국민이 생활주변에 가까이 하고 아무런 부담감없이 활용하게끔 한데 대해 세계 여러나라가 부러워하며 놀란다. 미니텔의 보급으로 프랑스 언어와 문자로 작성된 각종 정보를 세계 도



具志會
(주)가인시스템 대표이사

처에 자랑하고 자존심을 뽑내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와 컴퓨터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개량되지만 그속에 기록되고 보관되는 정보들은 하루아침에 어느 한 두명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프랑스의 미니텔과 같은 컴퓨터 단말기 보급은 정부의 과학기술을 다루는 부처의 작품이 아니었다. 이것을 값싸게 대량생산하게 한 것도 경제담당부처의 역할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직 프랑스 국민을 사랑하고 미래를 인식한 프랑스 문화사상의 한가지 표현방법이었다. 그리고 프랑스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민족자존심에 뿌리를 내리며 첨단기술을 이용하고 있다.